

일부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계열 학생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정미경 · 김윤미¹ · 홍세영²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¹Pittsburgh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ajors

Mi-Kyoung Jeong · Yoon-Mi Kim¹ · Sae-Young Hong²

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

¹Dept.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Pittsburgh

²Dept. of Social Work, Hanzh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study has three aims: 1) to assess the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college students towards oral and dental care, 2) to provide grounds for developing an oral and dental health educational program, and 3) to improve the oral and dental health status among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20 students who included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J health college and other majors from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0, to June 3, 2011. The collected 507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0.05.

Results : 1. As for a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the largest number of the students brushed their teeth three times a day, and the dental hygiene students did that more often than the other majors($p<0.001$). Concerning awareness of the toothbrushing method and the time for the change of the toothbrush, the rolling method was more prevailing amo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an the others($p<0.001$). 2. In regard to education experience about the toothbrushing method and 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toothbrushing method, 64.7% of respondents ever received education about the toothbrushing method($p<0.001$). 3. As to scaling experience and gingival bleedi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had more scaling experiences($p<0.001$), and the other majors who underwent gingival bleeding from time to time outnumbered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ho did($p<0.01$). 4. In relation to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the dental hygiene students found themselves to be in better oral health than the other majors($p<0.001$), and the latter had more parts of the mouth in which they didn't feel well than the former($p<0.01$).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ir oral health($p<0.001$) and felt more uncomfortable in chewing($p<0.05$). The other majors felt more uncomfortable in pronunciation($p<0.01$).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dental hygiene students strong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otivation, and self-care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and dental care compared to other college students. It suggested that regular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ir concern for oral and dental issues and to improve their oral and dental health statu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615-627)

Key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other majors, toothbrushing

색인 : 구강건강행위, 일반계열학생, 잇솔질, 치위생과학생

1. 서론

구강은 저작, 심미 및 발음을 하는 기관으로 특히 저작기능은 영양분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¹⁾. 구강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건강이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이 사회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대학시절에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구강건강관리도 다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 대학생의 구강건강은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이유에서 방치되고 있다³⁾.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대학생 시기인 18-24세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은 91.0%,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6.1개로 나타났으며, 치석 부착율이 48.8%로 보고되어⁴⁾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 83.0%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 5.07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 등²⁾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구강보건대상 인구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학령기에 발생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축적되어 있고, 치아우식증으로 발견된 치아가 많고, Kashi⁶⁾는 구강건강상의 문제가 증가할수록 학생의 학업수행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Reisine⁷⁾은 구강건강문제가 식사, 수면, 휴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부재, 여가활동, 사회적 접촉, 정서적인 행동 및 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청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년기의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

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⁸⁾.

구강건강행위란 구강 내의 질환이 발생하기 전의 건강한 구강상태에서 구강건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강병의 증상이나 증후가 없어지지는 행위라는 특징을 지니므로 그 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⁹⁾. 구강건강행위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차적인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¹⁰⁾, 구강건강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건강행위가 즉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지각 및 이해, 지식의 수용, 분석단계를 거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능력은 아동기 때부터 학령기 및 중·고등학교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몸에 익혀지게 되고 대학생 시절에 정착하게 된다¹²⁾.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전 연령층에 걸쳐 매우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질환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치면세균막의 제거는 치아우식증의 예방¹³⁾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의 치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⁴⁾.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구강건강행위로 잇솔질이나 그 외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사용, 치면세마 및 정기적인 구강검진¹⁵⁾ 등이 있다.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잇솔질을 하는 것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식사 후의 잇솔질은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치면세균막을 제거한다¹⁶⁾.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 시기의 구강건강관리는 다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며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의 중요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태도형성 및 행동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구강보건교육으로 가능하다¹⁷⁾. 구강보건교육은 기초적인 구강건강관리법을 교습시켜 합리적인 구강건강 관리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구강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지식제공을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¹⁸⁾. 대학생들을 위한 행동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회로써, 특히 보건교육은 단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아니라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구강보건의 중심이 될 치위생과 학생과 주 전공이 보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구강건강행위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 3일까지 진주시에 있는 J보건대학 치위생과 학생과 서울특별시에는 4년제 일반계열 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520부의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3부를 제외시킨 총 507부를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박 등²⁰⁾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과 구강건강행위의 항목으로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 잇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가장 최근 치과방문 시기, 스켈링 경험 등과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잇몸출혈 여부,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의 관계는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검정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 31.2%, 여자 68.8%로 치위생과 학생의 남자가 0.6%, 일반계열 학생의 남자가 30.6%로 나타났고, 치위생과 학생의 여자가 50.3%, 일반계열 여자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계열N(%)		
		치위생과	일반계열	계
성별	남	3(0.6)	155(30.6)	158(31.2)
	여	255(50.3)	94(18.5)	349(68.8)
연령	19세 이하	69(13.6)	97(19.1)	166(32.7)
	20~21세	164(32.3)	70(13.8)	234(46.2)
	22세 이상	25(4.9)	82(16.2)	107(21.1)
계		258(50.9)	249(49.1)	507(100)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횟수

특성	구분	잘 안함	1번	2번	3회	4회 이상	p
성별	남	(0.6)	6(3.8)	60(38.0)	71(44.9)	20(12.7)	.000***
	여	(0.3)	5(1.4)	70(20.1)	199(57.0)	74(21.2)	
계열	치위생과	2(0.8)	1(0.4)	40(15.5)	165(64.0)	50(19.4)	.000***
	일반	0(0.0)	10(4.0)	90(36.1)	105(42.2)	44(17.7)	
연령	19세 이하	0(0.0)	2(1.2)	55(33.1)	85(51.2)	4(14.5)	.002**
	20~21세	0(0.0)	8(3.4)	43(18.4)	130(55.6)	53(22.6)	
	22세 이상	2(1.9)	1(0.9)	32(29.9)	55(51.4)	17(15.9)	
계		2(0.4)	11(2.2)	130(25.6)	270(53.3)	94(18.5)	

p<0.01, *p<0.001

18.5%로 나타났다. 연령은 치위생과 학생의 19세 이하가 13.6%, 일반계열 학생이 19.1%였고 20~21세가 각 32.3%, 13.8%, 22세 이상이 치위생과 학생 4.9%, 일반계열 학생 16.2%로 나타났다(표 1).

〈표 2〉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잇솔질 횟수를 살펴보면 3회가 53.3%로 과반 수 이상이었고 2회가 25.6%, 4회 이상이 18.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남자는 44.9%가 여자는 57.0%로 남녀 모두 3회가 가장 많았으

며, 남자는 하루 2회가 38%, 여자는 하루 4회 이상이 21.2%로 응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p<0.001). 계열별로 보면 치위생과 학생은 하루 3회가 64.0%, 4회가 19.4% 순이었고 일반계열 학생은 3회가 42.2%, 2회가 36.1% 순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p<0.001). 연령구분에 있어서도 19세 이하, 20세~21세, 22세 이상이 51.2%, 55.6%, 51.4%로 3회가 가장 많았으며 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시기

특성	구분	아침전	p	아침후	p	점심전	p	점심후	p	간식후	p	저녁전	p	저녁후	p	자기전	p
성별	남	43 (8.5)	.084	115 (22.7)	.011*	4 (0.8)	.544	91 (17.9)	.000***	12 (2.4)	.185	7 (1.4)	.045	89 (17.6)	.007**	104 (20.5)	.192
	여	118 (23.3)		287 (56.6)		8 (1.6)		255 (50.3)		37 (7.3)		5 (1.0)		238 (46.9)		214 (42.2)	
계열	치위 생과	83 (32.2)	.055	215 (83.3)	.149	8 (3.1)	.519	199 (77.1)	.006**	27 (10.5)	.254	5 (1.9)	.161	178 (69.0)	.722	155 (60.1)	.499
	일반	78 (31.3)		187 (75.1)		4 (1.6)		147 (59.0)		22 (8.8)		7 (2.8)		149 (59.8)		163 (65.5)	
연령	19세 이하	51 (10.1)	.457	124 (24.5)	.015*	4 (0.8)	.209	101 (19.9)	.000***	12 (2.4)	.319	4 (0.8)	.362	103 (20.3)	.020*	105 (20.7)	.123
	20~ 21세	85 (16.8)		188 (37.1)		4 (0.8)		176 (34.7)		28 (5.5)		3 (0.6)		154 (30.4)		151 (29.8)	
	22세 이상	25 (4.9)		90 (17.8)		4 (0.8)		69 (13.6)		9 (1.8)		5 (1.0)		70 (13.8)		62 (12.2)	
계		161 (31.8)		402 (79.3)		12 (2.4)		346 (68.2)		49 (9.7)		12 (2.4)		327 (64.5)		318 (62.7)	

*p<0.05, **p<0.01, ***p<0.001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방법 및 잇솔 교환 시기 인지 여부

특성	구분	잇솔질 방법			p	잇솔교환시기 인지		p
		횡마법	회전법	혼합법		예	아니오	
성별	남	13(8.2)	91(57.6)	54(34.2)	.000***	60(38.0)	98(62.0)	.000***
	여	4(1.1)	281(80.5)	64(18.3)		304(87.1)	45(12.9)	
계열	치위생과	2(0.8)	229(88.8)	27(10.5)	.000***	253(98.1)	5(1.9)	.000***
	일반	15(6.0)	143(57.4)	91(36.5)		111(44.6)	138(55.4)	
연령	19세 이하	5(3.0)	112(67.5)	49(29.5)	.025*	111(66.9)	55(33.1)	.000***
	20~21세	5(2.1)	185(79.1)	44(18.8)		191(81.6)	43(18.4)	
	22세 이상	7(6.5)	75(70.1)	25(23.4)		62(57.9)	45(42.1)	
계		17(3.3)	372(73.4)	118(23.3)		364(71.8)	143(28.2)	

*p<0.05, **p<0.01, ***p<0.001

음으로 20세~21세에서는 4회가 22.6%로 많았고, 19세 이하는 2회가 33.1%, 22세 이상도 2회가 29.9%로 나타났다(p<0.01).

〈표 3〉과 같이 잇솔질 시기를 살펴보면 아침식후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점심식후가 68.2%, 저녁식후가 64.5%, 자기전인 62.7%, 아침식전 3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아침식후가 22.7%, 여자는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열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은 아침식후가 83.3%, 점심식후 77.1%, 저녁식후 69.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계열 학생은 아침식후가 75.1%, 자기전 65.5%, 저녁식후 59.8%, 점심식후 59.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구분에 있어서도 19세 이하, 20세~21세, 22세 이상이 아침식후가 각각 24.5%, 37.1%, 1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하는 자기전, 저녁식후, 점심식후가 각각 20.7%, 20.3%, 19.9%, 20세~21세는 점심식후, 저녁식후, 자기전 순으로 34.7%, 30.4%, 29.8%, 22세 이상은 저녁식후, 점심식후, 자기전 순으로 13.8%, 13.6%, 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잇솔질 방법과 잇솔의 교환 시기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잇솔질 방법은 회전법이 73.4%로 가장 많았고, 잇솔 교환 시기를 ‘알고 있다’가 71.8%로 대부분의 학생이 잇솔 교환 시기를 알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회전법 80.5%로 남자 5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

이 88.8%, 일반계열 학생은 57.4%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 집단에서 79.1%로 22세 이상 70.1%, 19세 이하 67.5%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잇솔 교환 시기 인지여부는 성별에 따라 잇솔 교환 시기를 ‘알고 있다’가 여자 87.1%, 남자 38.0%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p<0.001),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98.1%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며, 일반계열 학생은 44.6%로 과반 수 이상이 교환 시기를 모르고 있었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 집단이 81.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66.9%, 22세 이상 57.9% 순으로 알고 있었다(p<0.001).

〈표 5〉와 같이 잇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경험 및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잇솔질 방법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에게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가 64.7%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55.1%, 여자는 69.1%로 여자가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p<0.01),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72.9%로 일반계열 학생 56.2%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 집단이 67.9%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만족 여부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2.4%로 대부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74.1%, 여자가 71.6%로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방법 교육경험 및 만족 여부

특성	구분	잇솔질방법 교육경험		p	잇솔질방법 만족		p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별	남	87(55.1)	71(44.9)	.002**	117(74.1)	41(25.9)	.594
	여	241(69.1)	108(30.9)		250(71.6)	99(28.4)	
계열	치위생과	188(72.9)	70(27.1)	.000***	188(72.9)	70(27.1)	.843
	일반	140(56.2)	109(43.8)		179(71.9)	70(28.1)	
연령	19세 이하	106(63.9)	60(36.1)	.257	121(72.9)	45(27.1)	.938
	20~21세	159(67.9)	75(32.1)		170(72.6)	64(27.4)	
	22세 이상	63(58.9)	44(41.1)		76(71.0)	31(29.0)	
계		328(64.7)	179(35.3)		367(72.4)	140(27.6)	

p<0.01, *p<0.001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계열에 따라서도 치위생과 학생 72.9%, 일반계열 학생 71.9%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19세 이하가 72.9%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령에 따라서도 19세 이하가 72.9%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6〉과 같이 보조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치실이 39.4%로 가장 높았고 사용안함 34.5%, 양

치용액 16.8%, 치간 칫솔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사용안함이 13.2%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32.7%가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 56.6%가 치실을 사용하였고 일반계열 학생은 47.4%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치실사용이 20세-21세에서 23.1%, 19세 이하는 9.3%, 22세 이상 집단은 7.1%로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조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

특성	구분	치실	p	치간 칫솔	p	전동 칫솔	p	양치 용액	p	불소 용액	p	기타 용품	p	사용 안함	p
성별	남	34 (6.7)	.000***	26 (5.1)	.018*	11 (2.2)	.066	23 (4.5)	.223	16 (3.2)	.002**	10 (2.0)	.116	67 (13.2)	.008**
	여	166 (32.7)		33 (6.5)		12 (2.4)		62 (12.2)		11 (2.2)		35 (6.9)		108 (21.3)	
계열	치위 생과	146 (56.6)	.000***	25 (9.7)	.005**	6 (2.3)	.000***	46 (17.8)	.866	8 (3.1)	.002**	33 (12.8)	.254	57 (22.1)	.000***
	일반	54 (21.7)		34 (13.7)		17 (6.8)		39 (15.7)		19 (7.6)		12 (4.8)		118 (47.4)	
연령	19세 이하	47 (9.3)	.000***	16 (3.2)	.105	8 (1.6)	.012	29 (5.7)	.297	6 (1.2)	.018**	11 (2.2)	.001**	80 (15.8)	.000***
	20~ 21세	117 (23.1)		21 (4.1)		3 (0.6)		37 (7.3)		8 (1.6)		26 (5.1)		64 (12.6)	
	22세 이상	36 (7.1)		22 (4.3)		12 (2.4)		19 (3.7)		13 (2.6)		8 (1.6)		31 (6.1)	
계		200 (39.4)		59 (11.6)		23 (4.5)		85 (16.8)		27 (5.3)		45 (8.9)		175 (34.5)	

*p<0.05, **p<0.01, ***p<0.001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방법 및 잇솔 교환 시기 인지 여부

특성	구분	스켈링 경험		p	잇솔질 시 잇몸 출혈				p
		예	아니오		항상	가끔	아니오	모름	
성별	남	87 (55.1)	71 (44.9)	.000***	4 (2.5)	64 (40.5)	87 (55.1)	3 (1.9)	.248
	여	253 (72.5)	96 (27.5)		4 (1.1)	117 (33.5)	222 (63.6)	6 (1.7)	
계열	치위생과	208 (80.6)	50 (19.4)	.000***	2 (0.8)	71 (27.5)	183 (70.9)	2 (0.8)	.000***
	일반	132 (53.0)	117 (47.0)		6 (2.4)	110 (44.2)	126 (50.6)	7 (2.8)	
연령	19세 이하	86 (51.8)	80 (48.2)	.000***	3 (1.8)	56 (33.7)	101 (60.8)	6 (3.6)	.452
	20~21세	183 (78.2)	51 (21.8)		3 (1.3)	83 (35.5)	146 (62.4)	2 (0.9)	
	22세 이상	71 (66.4)	36 (33.6)		2 (1.9)	42 (39.3)	62 (57.9)	1 (0.9)	
계		340 (67.1)	167 (32.9)		8 (1.6)	181 (35.7)	309 (60.9)	9 (1.8)	

***p<0.001

나타나 19세 이하 집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5.8%로 높게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스켈링 경험 및 잇솔질 시 잇몸출혈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스켈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1%로 경험 없다는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72.5%로 남자 55.1%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80.6%로 일반계열 학생 53.0%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 집단이 78.2%로 22세 이상 66.4%, 19세 이하 51.8%보다 높았다($p<0.001$).

잇솔질 시 잇몸출혈 여부는 출혈 없음이 60.9%, 가끔 출혈이 35.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가끔 출혈이 남자 40.5%, 여자 33.5%로 여자보다 남자가 가끔 출혈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 27.5%, 일반계열 학생 44.2%가 가끔 출혈에 응답하여 계열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2세 이상 집단에서 39.3%가 가끔 출혈에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

식의 정도를 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구강건강이 좋다고 생각한다’가 치위생과에서 대체로 그렇다가 44.6%, 일반계열 학생 30.5%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치료할(불편한) 부위가 있다’는 치위생과 학생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6.0%, 가끔 그렇다 22.9% 순으로 높았고, 일반계열 학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 28.5%, 대체로 그렇다 26.1%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해 자주 걱정한다’는 응답은 치위생과 학생이 대체로 그렇다 34.5%, 가끔 그렇다 30.2%, 일반계열 학생은 28.5%, 22.5% 순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치아나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낌’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 40.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0%, 일반계열 학생이 47.8%, 29.3% 순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나 잇몸 등의 문제로 발음에 불편함을 느낌’은 치위생과 학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 68.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7%, 일반계열 학생이 60.2%, 20.5%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9〉와 같이 최근 치과병의원 방문 시기를 살펴보

표 8. 계열에 따른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

자가 인식	계열	절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p
구강건강이 좋다고 생각함	치위생과	2(0.8)	35(13.6)	82(31.8)	115(44.6)	24(9.3)	.000***
	일반	17(60.8)	53(21.3)	69(27.7)	76(30.5)	34(13.7)	
치료할 (불편한) 부위 있음	치위생과	48(18.6)	67(26.0)	59(22.9)	46(17.8)	38(14.7)	.002**
	일반	71(28.5)	51(20.5)	37(14.9)	65(26.1)	25(10.0)	
구강건강을 걱정함	치위생과	9(3.5)	32(12.4)	78(30.2)	89(34.5)	50(19.4)	.000***
	일반	38(15.3)	52(20.9)	56(22.5)	71(28.5)	32(12.9)	
씹기 불편	치위생과	105(40.7)	67(26.0)	45(17.4)	26(10.1)	15(5.8)	.023*
	일반	119(47.8)	73(29.3)	34(13.7)	20(8.0)	3(1.2)	
발음 불편	치위생과	177(68.6)	43(16.7)	20(7.8)	8(3.1)	10(3.9)	.004**
	일반	150(60.2)	51(20.5)	29(11.6)	18(7.2)	1(0.4)	

p<0.01, *p<0.001

면 먼저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2주~6개월, 6개월~1년, 1년~2년 각각 33.7%, 23.3%, 18.6%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계열 학생은 2주~6개월, 6개월~1년이 각각 22.9%, 1년~2년이 19.7% 순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최근 치과 방문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2주~6개월, 6개월~1년, 1년~2년 각각 20.3%, 20.3%, 19.6%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32.1%, 24.4%, 18.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최근 치과 방문율이 높았다(p<0.01).

〈표 10〉과 같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치료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학교일정이 바빠서 39.9%, 기타 22.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4.3%로 응답하였고, 일반계열 학생은 학교일정이 바빠서 26.9%, 기타 23.3%, 경제적으로

표 9. 계열 및 성별에 따른 최근 치과병의원 방문 시기

	계열		p	성별		p
	치위생과	일반		남	여	
2주 이내	13(5.0)	21(8.4)	.059	13(8.2)	21(6.0)	.001**
2주 ~ 6개월	87(33.7)	57(22.9)		32(20.3)	112(32.1)	
6개월 ~ 1년 사이	60(23.3)	57(22.9)		32(20.3)	85(24.4)	
1년 ~ 2년	48(18.6)	49(19.7)		31(19.6)	66(18.9)	
2년 ~ 5년 이내	17(6.6)	32(12.9)		26(16.5)	23(6.6)	
5년 이상	5(1.9)	8(3.2)		7(4.4)	6(1.7)	
가지 않음	11(4.3)	9(3.6)		9(5.7)	11(3.2)	
모르겠음	17(6.6)	16(6.4)		8(5.1)	25(7.2)	

**p<0.01

표 10. 계열 및 성별에 따른 치료받지 못한 이유

이유	계열		p	성별		p
	치위생과	일반		남	여	
경제적 부담	37(14.3)	46(18.5)	.000***	33(20.9)	50(14.3)	.000***
멀어서	2(0.8)	7(2.8)		2(1.3)	7(2.0)	
학교일정이 바빠서	103(39.9)	67(26.9)		38(24.1)	132(37.8)	
취업준비로 바빠서	0(0.0)	2(0.8)		2(1.3)	0(0.0)	
아르바이트	7(2.7)	3(1.2)		2(1.3)	8(2.3)	
치과치료가 덜 중요하다	4(1.6)	29(11.6)		22(13.9)	11(3.2)	
무서워서	21(8.1)	12(4.8)		4(2.5)	29(8.3)	
정기검진 받음	27(10.5)	25(10.0)		17(10.8)	35(10.0)	
기타	57(22.1)	58(23.3)		38(24.1)	77(22.1)	

***p<0.001

부담이 되어서 18.5%였으며, 치과치료가 덜 중요하다고 느낌이 11.6%로 나타났다(p<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학교일정이 바빠서 24.1%, 기타 24.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0.9%로 응답하였고, 여자는 학교일정이 바빠서 37.8%, 기타 22.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4.3%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4. 총괄 및 고안

초기 성인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나 불건강한 습관과 행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으므로²¹⁾ 이에 속하는 대학생도 건강증진행위의 하나인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구강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구강진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고, 학교수업에 결석을 한다는 것은 대학생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손실이다²²⁾.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과 주전공이 보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구강건강행위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횟수는 성별에 있어 남녀 모두 3회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44.9%가 여자는 57.0%, 다음으로 남자는 하루 2회가 38%, 여자는 하루 4회 이상이 21.2%로 응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⁴⁾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수치로 남자 평균 2.63회, 여자 2.87회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이와 유²²⁾의 연구에서도 평균 횟수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전공교육의 효과로도 사료된다. 계열별로는 치위생과 학생은 하루 3회가 64.0%, 4회가 19.4% 순이었고 일반계열 학생은 3회가 42.2%, 2회가 36.1% 순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이 하루 평균 약 3회, 일반계열 학생이 약 2.7회로 구강보건관리 측면에서 하루 3회의 잇솔질을 권장하는 취지에 치위생과 학생이 보다 가깝다고 생각되어 이는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세~21세, 22세 이상이 51.2%, 55.6%, 51.4%로 3회가 가장 많았다. 이¹²⁾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증진행위 중 잇솔질 영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세~21세가 22세 이상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이는 20~21세의 치위생과 학생 비율이 63.6%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잇솔질 시기를 살펴보면 아침식후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점심식후가 68.2%, 저녁식후가 64.5%, 자기전인 62.7%, 아침식전 3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⁴⁾에 서와 비슷한 결과이고,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식 후 잇솔질률이 높았고, 계열별로는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식후 잇솔질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²²⁾가 연구한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잇솔질 관리 수준에서 식후 잇솔질의 필요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식후 잇솔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서는 20~21세의 아침식후 잇솔질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아 치위생과 학생의 비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잇솔질 방법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회전법 80.5%로 남자 5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에서는 김 등²³⁾의 연구에서 보건계열의 82.6%, 비보건 계열의 38.4%가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여 본 연구의 치위생과 88.8%, 일반계열 57.4%보다 차이가 있었다. 올바른 잇솔질은 치아우식증뿐만 아니라 치주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계열 학생들의 회전법 잇솔질률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잇솔 교환 시기 인지여부는 성별에 따라 잇솔 교환 시기를 '알고 있다'가 여자 87.1%, 남자 38.0%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알고 있었고,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98.1%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 일반계열 학생은 44.6%로 과반 수 이상이 교환 시기를 모르고 있었다. 부적절한 잇솔은 치면세균막 제거효과가 떨어지므로 남자와 일반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칫솔바꾸는 날'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비율이 높은 20세~21세 집단이 81.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잇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경험 및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잇솔질 방법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에게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가 64.7%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 계열에 따라서는 치

위생과 학생이 72.9%로 일반계열 학생 5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계열 학생의 회전법 잇솔질률과 비례하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잇솔질 만족 여부에서는 만족 한다는 응답이 72.4%로 대부분이 본인의 잇솔질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성별, 계열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정확한 잇솔질을 하고 있을 경우 상관없으나, 부정확한 잇솔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잇솔질 방법의 교육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보조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는 이와 유²²⁾의 연구 결과 남녀,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사용률이 60% 이상이었 고 보건계열은 56.9%가 사용하지 않아 사용률이 낮았다. 성별로 많이 사용한 종류는 남자가 치간칫솔 12.0%, 여자는 구강양치액 15.5%를 사용하였고, 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모두 구강양치액을 19.5%, 9.0%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실이 39.4%로 가장 높았고 사용안함인 34.5%, 양치 용액 16.8%, 치간 칫솔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6.7%, 여자 32.7%가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 56.6%, 일반계열 학생은 21.7%가 치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에서 치실 사용률이 23.1%로 높게 나타났고 19세 이하 집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5.8%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구강 관리용품은 잇솔질만으로 구강건강관리가 부족한 부위에 사용이 권장되는데 김 등²³⁾은 보조구강관리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치실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자신의 구강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조구강관리용품의 장점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켈링 경험 및 잇솔질 시 잇몸출혈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스켈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1%로 경험 없 다의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계열에 따른 스켈링 경험은 박 등²⁰⁾의 연구와 같이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 집단이

78.2%로 22세 이상 66.4%, 19세 이하 51.8%보다 높게 나타나 스켈링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다는 장 등²⁴⁾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20~21세 집단에 치위생과 학생의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잇솔질 시 잇몸출혈 여부는 출혈 없음이 60.9%, 가끔 출혈이 35.7%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가끔 출혈이 높았으나 차이는 없었고,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 27.5%, 일반계열 학생 44.2%가 가끔 출혈에 응답하여 계열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한 예방 처치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연령에 따라서는 22세 이상 집단에서 39.3%가 가끔 출혈에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구강건강이 좋다고 생각한다’가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치료할(불편한) 부위가 있다’는 응답은 치위생과 학생이 가끔 그렇다 22.9%, 일반계열 학생은 대체로 그렇다 26.1%로 일반계열 학생의 불편한 부위가 많았다.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해 자주 걱정한다’는 응답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아나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낌’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치아나 잇몸 등의 문제로 발음에 불편함을 느낌’은 일반계열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송²⁵⁾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하다와 보통이다의 비율이 보건계열과 일반계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건강하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자신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치과병의원 방문 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계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이 2주~6개월, 6개월~1년, 1년~2년 각각 33.7%, 23.3%, 18.6%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계열 학생은 2주~6개월, 6개월~1년이 22.9%, 1년~2년이 19.7% 순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최근 치과 방문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박²⁶⁾은 최근 1년 내 구강검진여부에서 치과계열이 47.8%, 일반계열이

29.6%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이와 이²⁷⁾는 대학생의 연간구강진료기관 이용율이 45.6%로 본 연구의 치위생과 학생의 이용율보다는 낮고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최근 치과 방문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위생과 학생이 학교일정이 바빠서 39.9%, 기타 22.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4.3%로 응답하였고, 일반계열 학생은 학교일정이 바빠서 26.9%, 기타 23.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8.5%였으며, 치과치료가 덜 중요하다고 느낌이 11.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치료받지 못한 이유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치과 질환은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이 만성질환 진행된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임으로 예방 차원의 치과 방문율이 높아져야 구강건강이 증진되므로 예방목적의 치과내원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됨을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위생과 학생들과 일반계열 학생들 간의 비교를 위해 진주와 서울에 한정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치위생과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낮아 남녀 간의 차이가 구강보건관련 교육의 효과로 보기는 힘든 점도 있다. 향후 더 광범위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구강건강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인식이 실천으로 연계되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진주시에 있는 J보건대학 치위생과학생(2~3학년)과 서울특별시에 있는 4년제 일반계열 학생(1~4학년) 간의 구강건강행위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잇몸출혈 여부,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비교하여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일 잇솔질 횟수는 '3회'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계열별로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많았으며 ($p<0.001$), 연령별로는 20~21세에서 3회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방법과 잇솔교환 시기 인지여부는 먼저 잇솔질 방법에서 회전법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계열로는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p<0.001$), 연령은 20~21세에서 높게 나타났고($p<0.05$), 잇솔교환 시기 인지여부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20~21세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솔질 방법 교육경험과 잇솔질 방법 만족여부는 여자가 남자보다($p<0.01$)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잇솔질 방법에 대하여 교육받은 경험이 많았고($p<0.001$), 잇솔질 방법의 만족여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2.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잇솔질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였고 성별, 계열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 및 잇몸출혈 여부는 먼저 스켈링 경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연령은 20~21세에서 높게 나타났고($p<0.001$), 잇몸출혈 여부는 '가끔 출혈'이 치위생과 학생보다 일반계열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1$).
5. 계열에 따른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구강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였고($p<0.001$), 치위생과 학생보다 일반계열 학생의 불편한 부위가 많았고($p<0.01$), 치위생과 학생들이 구강건강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치위생과 학생이 씹는데 불편함을 더 느꼈고($p<0.05$), 일반계열 학생이 발음에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었다($p<0.01$).
6. 계열 및 성별에 따른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계열에 따라서는 학교일정이 바빠서가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일정이 바빠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구강보건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일반계열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잘 되고 있었다. 이는 학과수업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한 전공교육의 효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관련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구강건강 증상이 감소한다는 정 등²⁸⁾의 결과와 같이 일반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과 구강건강행위 등에 대한 강의 및 대학생들의 생활환경이 잘 반영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빈번하게 교육을 실시할 때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종배, 백대일, 신승철 외 3인. 치학개론. 1판. 서울:고문사;2004.
2. 이재승, 윤영만, 이흥수, 김수남.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3):245-258.
3. Im MY.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Doctor's degree Thesis of Yonsei University;1998.
4. 보건복지부. 2010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II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보건복지부;2010:395-518.
5. 보건복지부.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서울:보건복지부;2006:55-99.
6. Kashi EP. Health status of adolescent school girls in region of Alambagh, Lucknow. Indian J Med 1971;25(6):376-383.
7. Reisine ST. Dental health and public policy: the social impact of dental disease. Am J Public Health 1985;75(1):27-30.
8. 이호연. 건강증진호형을 이용한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2001.
9. 이흥수, 김기순. 전라북도 일부지역의 경제활동여성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3):287-297.

10. 오운배,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 18(1):62-83.
11. Suchman EA.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Arch Environ Health 1970;20(1):105-110.
12. 이선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과 그 영향 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1):41-51.
13. Axelsson P, Kindhe J. The effect if a plaque control program in gingivitis and dental caries in schoolchildren. J Dent Res 1997;76(special issue C):142-148.
14. Hoover DR, Lefkowitz W. Reduction of gingivitis by toothbrushing. J periodontal 1965;36:193-197.
15. 권미영. 치과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219-228.
16. 김민석, 백대일, 문혁수, 김종배. 잇솔사용과정의 강모단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1;15(2):357-376.
17.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4판. 서울:고문사;2004.
18. 최은미. 구강보건교육과 치위생과 홍보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학술지 2001;4:449-466.
19. 김명, 서혜경, 서미경, 김영복. 보건교육 이론과 적용. 1판. 서울:계축문화사;2001.
20. 박일순, 이경희, 윤혜정.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8;8(3):175-182.
21. Regina LT Lee, Alice JT. Yuen Loke.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Hong-Kong. Public Health Nurs 2005;22(3):209-220.
22. 이민영, 유자혜. 일부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 및 관리수준에 관한 비교조사의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141-151.
23.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현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6(2):493-504.
24. 장계원, 강용주, 정미경. 스켈링 실습실 방문자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6):1083-1093.
25. 송설경. 일부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2003.
26. 박영남. 치위생과와 일반계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2):129-141.
27. 이재승, 이흥수.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3):331-346.
28. 정기천, 이흥수, 김수남.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 이용행태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3;27(3):357-373.